

‘현대판 문익점’

-성기수 박사의 회갑에 부쳐-

이한빈 박사(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I

창조와 개척의 정신은 사회의 쇄신과 역사의 진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자연과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그것을 감동적인 언어와 양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예술적 창작이 되고, 예리한 이성으로 자연과 우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나아가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안해 내면 그것이 과학기술적 작품이 된다.

그래서 시인, 화가, 조각가, 작곡가, 발명가와 같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남들이 가 보지 못한 지역을 답사하는 탐험가, 남들이 오르지 못한 높은 봉오리를 정복하는 등산가, 남들이 뚫지 못한 시장을 개척하는 세일즈맨도 다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지성과 과학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서면, 또 다른 형태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 나라나 다른 고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얻은 견문과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고국이나 고향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한 창의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고려

시대에 대륙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 핀 목화를 보고 그 씨를 채취해서 고향에 가져다가 심어 우리나라 목화 재배의 창시자가 되었던 문익점이 가장 고전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II

오늘 우리가 회갑을 축하하는 성기수 박사야말로 '현대판 문익점' 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성 박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50년대 말 예산국장으로 재직시 그가 서울공대 항공학과를 갓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갈 때였다. 그 당시 공대에서 항공역학을 가르치던 한 만섭 박사의 소개로 추천서를 써준 것이 계기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내가 추천서를 참 잘 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아세아재단의 대표로 서울에 와 있던 Jack James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단이 재정지원을 해준 관계로 잘 기억하면서 후일 나와 인재양성의 사례를 들 때마다 말하기를, 성기수라는 유학생이 하버드대학에 들어 갔는데 워낙 성적이 우수해서 그곳 학장이 학칙에도 없는 특례조치를 하여 학위도 앞당겨 주었다는 얘기를 몇번이고 나한테 전해주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나는 학계로 투신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의 일을 맡게 되었고 광범위한 교과과정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새 커리큘럼의 일부로 '행정에 대한 계량적 접근' 이 포함되었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강의를 맡을 만한 교수가 없었다. 그 무렵, 마침 KIST가 창설되어 성 박사가 거기에서 컴퓨터 부문의 연구를 시작하던 터여서 성 박사에게 이 새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아마도 한국 대학원교육에 있어서 정식으로 사회과학 부분에 이런 종류의 강좌가 설치된 효시였을 것이다.

여하튼 이 강좌는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냈다. 나도 모르는 분야라서 그저 강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그 강의는 컴퓨터의 초보적인 언어와 개념부터 시작하였는데, 그후 학생들의 진로를 추적해

보면, 안문석, 노화준, 이가종, 이무신 등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의 배경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개발과 과학기술정책 방면의 역군들이 많이 이 과정에서 배출되었다. 나는 후일 두고 두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이런 모양으로나마 한국이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느끼며, 성기수 박사가 요긴한 촉매 역할을 한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III

현대에 있어서는 창의(Creativity)도 조직화되어야 한다.

옛날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혼자서 무엇을 고안해내고 그 결과를 내놓는 일은 드물게 되었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60년대 말부터 KIST, KAIS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술개발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런 센터들을 모체로 하여 각 분야에 제2세 격인 부문별 연구소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Spin-off 현상을 일으켜서 오늘날 민간산업 부문에도 1,000여개의 연구소가 속출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커다란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창의를 개발하는 견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개인의 지식과 전문이 다른 개인들의 지식과 전문에 접할 때, 그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느 한 부문의 선각자가 사회의 인정을 받고 안정된 환경을 확보한 뒤, 다른 많은 인재들을 규합하고 배양하여 더 많은 분량의 창의를 개발하여, 마침내 이것이 하나의 창조의 요람(Island of Creativity)를 형성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모체가 되어 많은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기술확산의 과정이요, 나아가서 사회발전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지난 40년간 한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더듬어 볼 때마다, KIST와 같은 새로운 R&D 센터가 창설되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외에 산재해 있던 창의적인 두뇌들을 조직화하여 집단적 창조의 모델을 설정한 일을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성기수 박사와 같은 비상한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인재가 KIST의 창설멤버의 한 사람으로 투신하여 우리나라의 컴퓨터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하여 항

상 경탄의 눈과 존경의 마음으로 지켜보아 왔다.

IV

개척자는 외롭다. 남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그것을 내나라와 내고장에 활용해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을 일반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자면, 이런 凡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상해 보이는 인재들을 잘 보살펴 주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새로운 생각을 즐겨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억누르는 사회에서는 凡庸(Mediocrity)만이 판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사회는 쇠퇴하고 만다. 18세기의 우리나라에서 쥘신을 신고 전국을 답사하며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드느라고 심신을 바친 김정호 같은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가진 선각자는 투옥되고, 백성에게 종두를 해주고, 성을 쌓는데 기증기를 이용한 丁茶山 같은 창조적 인재를 근 20년간 벽지에 유배시킨 왕조가 망국의 비운을 자초한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 성기수 박사야말로 오늘날 드물게 보는 창조적 두뇌의 소유자이다. 다행히 그는 지난날 한국의 산업화의 심화기와 정보화의 초기에 그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 유용하게 봉사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70년대 이래 〈컴퓨터 국산화〉, 〈정보산업기술개발〉, 〈CAD/CAM 소프트웨어〉, 〈정부예산 업무의 EDPS〉, 〈한글용 컴퓨터단말장치〉, 〈중앙관상대 기상통계의 EDPS〉, 〈전화요금 관리 업무의 EDPS〉, 〈대학입학예비고사 EDPS〉, 〈국민복지연금 업무의 전산화〉, 〈대법원판례 전산화〉, 〈증권거래소 EDPS〉, 〈의료보험 EDPS〉, 〈88올림픽 경기대회 전산화〉 등 실로 각 방면에 걸쳐서 수많은 전산시스템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만약 70년대와 80년대에 성기수 박사와 그가 이끄는 KIST EDPS 팀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아끼는 성기수 박사의 회갑을 축하하면서 정보화가 심화되는 21세기를 향하여, 우리 사회가 성 박사와 같은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인재들을 더욱 더 아끼고 키

워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바라건대, 우리의 성기수 박사께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과 창의성을 유지하시고, 또 그 가정에도 행복과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